

미셸 박 스틸, 연방하원 48지구 선거 출마 공식 선언

미셸 박 스틸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가 내년에 열리는 연방하원 48지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미셸 박 스틸 수퍼바이저는 지난 25일 LA 한인상공회의소에서 연방하원 캘리포니아 48지구 출마 기자회견 및 출정식을 열고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함께 나아가는 일꾼이 되겠다.” 며 한인 여성 최초로 연방의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한인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인으로서의 캘리포니아 선출직 최고위직에 오른 미셸 스틸 박 수퍼바이저는 “그간 공화당 텃밭이었던 연방하원 48지구는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에 패배했지만 아직도 공화당이 강세인 선거구여서 내년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면서 “30%에 달하는 무당파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는 사람이 결국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고 예측했다.

미셸 박 스틸 후보는 내년 3월에 열리는 예비선거를 위해 500만 달러의 후원금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오는 6월 4일 첫 기금 모금 행사를 열 계획이다.

연방하원 48지구는 현재 미셸 스틸 박 수퍼바이저가 관할하는 오렌지카운티 2지구와 3분의 2가 중복돼 박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지난해 선거에서 당시 현역이었던 공화당의 데이나 로라바커 전 의원이 민주당의 할리 로다 현 의원에게 2만표 차로 패하고 반 트럼프 정서도 적지 않아 박 후보가 한인 여성 최초로 연방의회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한인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절실한 형편이다.

연방하원 48지구는 라구나비치와 실비치, 코스타메사, 뉴포트비치, 파운틴밸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시안계 유권자는 14% 정도로 추정된다.

예비선거는 내년 3월 3일, 결선은 내년 11월 3일에 열린다.

평생공부동동체 ‘재미지게’, 새 프로그램 개설



▲ 사진설명: 심리학 강의를 받은 장철호박사와 함께 한 재미지게 회원 자치회 임원들. 왼쪽부터 허근배, 장철호, 서명룡, 허경애, 형용구씨

평생공부동동체 재미지게(공동대표: 김상의, 박영규)가 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새롭게 마련한 프로그램은 ‘정신분석에로의 초대-프로이드와의 대화’, ‘고사성어로 이해하는 중국사’, ‘붓글씨 교실’, ‘영화·독서 토론’ 등이다.

‘정신분석에로의 초대-프로이드와의 대화’는 삶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세계를 탐구,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신분석 전문가 장철호 박사가 강사로 나선다.

장철호 박사는 한국의 프로이드필 정신분석연구소에서 정신분석학과 임상심리학과정을 수료하고 1급 상담심리사 자격을 취득하기도 했다. 최면치료과정 등도 이수했으며 서울대 동창들의 인문학 공부

모임인 낭만산책 등에서 강의한 바 있다. 강좌는 5월 6일부터 12주에 걸쳐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전 언론인 박영규씨가 진행하는 ‘고사성어로 이해하는 중국사’는 최근 전반기 1800년사를 마치고 5월 17일부터 수나라에서 청나라로 이어지는 후반기 1800년사를 시작한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40여년 경력의 서예가인 이능 황태선 선생이 지도하는 붓글씨 교실도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열리며 수시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회원들끼리 서로 간에 배우고 가르치는 모임을 지향하고 있는 재미지게는 모임의 발전을 위해 최근 회원 자치회를 구성하고 취향에 따라 골라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토론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토론회는 매주 금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열리며 영화, 독서토론과 일상생활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토론하는 자유토론, 생활정보 및 물품을 아나바다 형식으로 공유하는 아나바다 토론이 번갈아가며 진행된다.

5월의 첫 토론회는 2011년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부문에 후보로 올랐던 ‘그을린 사랑(Incendies, 감독 드니 빌뇌브)’을 시청한 후 감상평을 토론하는 영화토론이다. 이 토론회는 3일(금) 열린다.

▶ 주소: 9562 Garden Grove Bl. #Q, Garden Grove
▶ 문의: (714) 757-9771
carpediem0199@gmail.com

한인 데이비드 김 씨, 캘리포니아주 교통청장에 임명

한인 데이비드 김 씨(55)가 캘리포니아주 교통청장으로 임명됐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는 지난 24일 김 씨를 캘리포니아주 교통청장(Secretary of the California State Transportation Agency)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김 씨는 캘리포니아주 상원 인준을 남겨두고 있지만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김 씨는 캘리포니아주 교통청장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을 듣고 “더 나은 교통정책을 수립하는데 힘을

쏟겠다.” 고 말했다.

김 교통청장은 LA카운티교통국 연방정책 및 정부 관계 담당 부행정관을 역임했으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연방교통부 차관보로 일한 교통정책 및 시스템 전문가이다.

캘리포니아주교통청은 프리웨이와 철도를 관리하는 교통국(Caltrans), 차량국(DMV), 고속철관리국(HSRA), 교통단속국(OTS) 등 8개 산하기관을 관리한다.

법인 설립과 절세를 도와드립니다

오승윤 공인 회계사 (Michael S. OH, CPA)

오승윤 공인 회계사는 미국 기업 CFO로서의

- 1. 풍부한 실무 경험
- 2. 정확한 회계 업무
- 3. 올바른 직업 윤리로

기업과 개인의 절세를 도와 드립니다.



빠른 환불

회사 설립 및 상담	Corporation 설립 및 해산,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Partnership(General & Limited Partnership)
세금 업무	개인/Corporation/LLC/Partnership 등에 관련된 모든 세금 보고
세무감사 대행	IRS, SBOE, FTB, EDD의 세무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회계 업무	Computerized 회계 장부 정리, Payroll Service, Internal Control System Review
투자 자문	IRA, SEP, 401K, Mutual Funds
기타	사업체 분석, Accounting System 상담 및 설치(Quickbooks Pro Specialist), ABC License

E-2 관련 회사 설립 및 상담 (BUSINESS PLANNING)



UC San Diego 졸업
미 해양연구소 근무(NASC)
미 기업 및 한국 대기업 CFO역임
Member of CS

714.522.1120

FAX. 714.522.1121 (Beach + Commonwealth) / 유니티 은행 뒤

6281 Beach Blvd. #101, Buena Park, CA 90621